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경 축</b> <b>재외동포청 개청</b>
		배포일자	2023년 6월 6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해양환경과	담당자	• 해양환경정책팀장 이현미 ☎440-7901 • 담당자 유상호 ☎440-790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갯벌 보전과 이용 방안 마련위한 연구용역 착수**  
**- 전국 2번째 규모 갯벌 보유지역으로서 지속적 이용 방안 제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갯벌의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한 ‘인천갯벌 보전 및 이용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은 전국에서 전남에 이은 2번째 규모(728.3km<sup>2</sup>)의 갯벌 보유 지역으로, 국내 갯벌 총면적의 29.3%를 차지하고 있다.

갯벌은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블루카본으로서의 가치에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8개월간 수행한다. 인천갯벌 생태계 현황 및 여건 분석, 인천갯벌 보전 및 이용방안 등을 연구하게 된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갯벌을 보전지역과 이용지역으로 이원화해 지역별 관리 방향을 검토해 갯벌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 방안을 마련할 계

획이다. 또한 갯벌 체험, 갯벌 생태교육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인천갯벌의 지역별 맞춤형 이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 용역으로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2단계 등재 추진을 위해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인천갯벌 등재후보지 구역 제안과 등재후보지 주변 지역주민 대상 의견조사에 따른 수용성 확보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우영 시 해양환경과장은 “이번 용역은 인천갯벌의 현명한 보전과 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전문가와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민에게 가시적 혜택이 돌아갈 시책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갯벌사진>

